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목상합니다.
2. 2026년도 주일예찬을 섬기실 분들은 애찬실에 게시된 주별 신청란에 기념 내용과 함께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예찬 섬김>은 생일, 결혼, 출산, 진급, 사업 등을 기념하면서 전 교인을 애찬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3. 2026년도 달력을 한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목장 목자 교육안내

2026년부터 기존 속회가 목장으로 개편 됩니다.

* 모임일시 : 12월 13일(토) 오전 7시 20분 * 장소 : 초등부실

• 2026년도 은사사역 신청

2026년도 은사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준비된 신청서에 하나 이상의 사역에 체크(☒)해서 준비된 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지참조)

* 신청마감- 12월 21일(주일)까지

• 성탄주일 세례신청

세례일 : 12월 21일(주일) * 세례교육 : 12월 13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초등부실 * 문의 : 교회 사무실

• 임원회 안내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대예배실

* 참석대상 :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

• GMC 한미연회 동남부 지방 온라인 합동 구역회

일시 : 12월 14일(주일) 오후 4시 * 구역회 장소 : 교회

* 참석대상 : 담임목사, 각 위원회 위원장, 임원회장, 평신도 대표

• 교회 창립 기념 신년 부흥성회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 18일(주일)

주제 :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

강사 : 곽주환 목사 (한국 베다니감리교회 담임)

• 문인화반 안내

문인화반 그림 전시 - 본당 로비 * 12/21(주일)부터 4주간

Opening Reception : 12:27(토) 12시~2시 까지

* 문의: 윤창우 권사(617-640-3639)

• 교우동정

[장례] 이경분 집사님 남편(Richard Rafford)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계시는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홍 목사
- EM-다문화, Youth/ 김학섭 목사 •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11,411.00

일반현금 \$10,741.00	십일조: \$6,075.00 주 일: \$1,283.00	감사.월삭: \$1,300.00 기 타: \$2,083.00
건축현금 \$70.00	약 정 \$70.00	
선교현금 \$600.00	속 회: \$100.00	중남미: \$50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4권 49호

2025년 12월 07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외
Global Methodist Church



2025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풀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대강절 둘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찬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시도신경
찬송 Hymn / 524장(통313)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도 Prayer / 이현숙 권사

찬양 Choir / 호신나 찬양대
- 영화롭도다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 성경봉독 Scripture 요 14:27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대강절 2주차

<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

Week 2 of Advent – Jesus, the Prince of Peace

성만찬 Holy Communion

- ▲ 파송찬송 Closing Hymn/ 412장(통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5년 12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2월 7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이현숙권사	소망교구
	2부			정복순권사	
다음주 12월 14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노효영권사	사랑교구
	2부			홍순희권사	

금주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뉴(Lk) 2:14

<설교 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초를 밝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의 탄생을 선포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요 14:27)고 하셨습니다.

1. 흔들림 속에서도 지켜 주시는 평안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쉽게 깨집니다. 건강,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에도 평안이 무너집니다. 설교자는 미시건에 있는 딸의 폭설 소식, 한국의 장모님 사고 소식 앞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을 나누며,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환경에 좌우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평안히 잠들고 계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행 27:25)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이 멈춰야 얹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하지 않아도 마음을 불들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평안입니다.

2.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은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창된 평안을 잃은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등이 있을 때 십자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임합니다. →

<설교 요약>

3. 평안을 흘려보내는 삶으로의 부르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평안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눅 10:5)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다(민 6:26).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평안을 만들어 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갈등을 키우지 않고 화해를 이룹니다. 우리의 평안한 태도, 부드러운 말, 용서와 인내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려내는 가장 강력한 전달 방식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삶 자체가 곧 복음의 삶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평안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평화의 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대강절에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 질문 >

- 최근 내 삶에서 평안을 흔들어 놓은 “광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를 느꼈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내 일상에서 어떤 불안이나 흔들림이 나타나나요?
- 회복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앞에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 이번 주에 내가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금주 예찬 섬김

	금주 (12월 7일) 최혜영, 홍성천권사		다음주 (12월 14일) 이윤희, 박우경집사
	범사감사 소망교구		결혼기념감사 사랑교구